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1년 2월 22일(월) 총 6매	
담당 부서	부대이전 개발과	담당자	• 캠프마켓계획팀장 강원덕 ☎440-4661 • 담당자 윤 미 ☎440-4662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사업,
7개월에 걸친 문화영향평가 심층평가 완료**

- 인천시, 평가결과 적극 반영하여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 약속 -
- 시민이 주인인 ‘시민문화 향유공간’ 으로 조성 가능하다는 평가 -

- ☒ 인천광역시(박남춘)가 지난해 7월에 착수한 캠프마켓 내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가 2월 완료되었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신촌문화공원이 지역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 박남춘 시장은 202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며 본 사업을 꼼꼼하게 챙겼다.
- ☒ 문화영향평가는 2013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과 정책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 이번 캠프마켓 문화영향평가는 문화를 중요시하고 각종 정책을 문화화하기 위한 시의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하다.
-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지자체 스스로 문화적 영향을 연구하는 ‘자체평가’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전문평가’로 나뉘며, 전문평가는 또다시 평가의 심도에 따라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로 나뉜다.
- 특히 이번 인천시의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도 전체 31건의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 오직 3곳(인천, 전북 익산, 부산)에 해당하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타 지역의 평가 유형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 이는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 및 반환 등 역사적 의미와 향후 인접지역의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고유의 연구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또한 이번 캠프마켓에 대한 평가는 계획의 수립 후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공원계획수립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본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역사적·문화적 영향을 검토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등 지역 문화와 어우러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인천시가 정책적으로 섬세하게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이번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의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세부 지표로는 ▲문화향유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분류된다.

- 본 평가를 진행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본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공원조성에 따라 만들어지는 숲과 문화공간이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문화 공간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민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의 조성 가능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 또한 평가단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접근성과 더불어 인천시의 10개 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생활문화동아리를 가지고 있는 부평의 특성상 기존의 부평구 문화재단의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하여 마을단위 풍물단의 연습 발표무대나 시각 예술의 전시장 등 지역공동체들이 활동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 본 사업의 전제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참여의견과 전문가 의견에서 대상지의 역사적 가치와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개방적 공간과 환경성을 고려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미군기지의 반환이라는 특수성, 조병창 등 문화유산의 역사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라는 배후시장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지역관광지로 발전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 다만 문화향유와 공간 활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시민들의 참여 유도 등을 통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 이전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표현 및 참여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인식이 조사되었으므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참여가능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점진적 참여권이 확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 류윤키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문화기본법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아직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서 평가 시점이 다소 빠르다는 평가단의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문화에 초점을 맞춰 향후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여 캠프마켓을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붙임> 캠프마켓 내 신촌문화공원 문화영향평가보고서(요약). 끝.

붙임		캠프마켓 내 신촌문화공원 문화영향평가 결과	
평가지표		내 용	
문화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지역을 비롯해 부평구, 인천광역시 전반에 문화향유 기회와 시설, 그리고 교육기회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캠프마켓 공민조성사업을 통한 전반적 문화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는 해당 사업 대상지인 주안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2km이내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공연 조성에 따라 만들어지는 숲과 문화공간은 주변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의 기대수요를 고려할 때 거시적 문화 환경의 측면에서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의 방향이나 영향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됨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민문화향유공간으로의 조성가능성을 갖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지역을 비롯하여 배후지역 거주 시민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일상속에서 활용도가 높은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상당함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인 정책참여 기회와 이번 캠프마켓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표현 및 참여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인식이 조사되었으나, 조성사업 이후 표현 및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조성사업은 지역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함께 유관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긍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공간으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워킹그룹의 활동과 의사결정에서의 주민참여, 그리고 정보의 공유 등이 매우 부족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다만 현재 계획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참여가능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점진적 참여권 확대가 가능할 것임 •인포센터, 라운드테이블 중심 정보문화향유의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으나, 현재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정보문화 향유권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을 유형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고민하고,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p>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문화향유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증가될 것으로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음악자료원 설립계획은 부평음악융합도시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공민 야외공간을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발표 기회도 증가할 것임 - 공민과 시설은 마을단위 풍물단(동풍물단)의 연습 발표 무대로, 시각예술의 전시장으로 각각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인포센터> <라운드 테이블> 활용 정보 공유, 추후 대중음악자료원, 부평평화박물관 등의 시설을 통해 문화정보 제공 수준이 높아질 것임 - 문화재단 등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인근 주민 등 참여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생활문화프로 그램 및 아티스트 중심 문화예술 활동의 증가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상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라운드테이블, 시민생각찾기 등을 통해 충분히 문화기본권에 대한 고려가 준비되고 있음 •다만 향유와 공간활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워킹그룹의 구성, 시민들의 참여 유도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문화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캠프마켓에 대한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높고, 캠프마켓 조성사업이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보전을 통해 가치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기대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됨 <p>문화유산 및 경관에 대한 조성 이후 방문 의향이 높으며, 지역관광지로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화공원의 확대 및 여가문화활동 영역과 기회의 증대를 통해 문화유산향유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평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간을 통한 문화유산 활용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캠프마켓 문화공원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일본군 군수기지와 관련한 블랙 투어리즘, 미군 기지와 관련한 대중문화 관광이 가능한 공간임. •본 사업 전체가 문화이고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참여의견과 전문가 의견에서 대상지의 역사적 가치와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개방적 공간과 환경성을 고려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평가지표		내 용	
문화발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영향의 방향(긍정/부정)을 단기적으로 예상하기는 시기상조이나, 생태, 여가, 교육, 문화 등 시민중심의 콘텐츠로 구성이 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방향설정이 초기부터 잘 책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재정 및 부지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불가역성 커짐에 따라 참여를 통한 갈등관리가 중요함 - 현재 미군기지의 완전이전과 함께 갈등 유발의 요소(특히 공민이용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들은 단기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캠프마켓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의 선호(녹지 공민, 무소음 문화시설 등)와 다양한 공공적 이용 목적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음 - 따라서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주민참여를 통해 이를 해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특히 부평구가 도입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의 도입과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며, 캠프마켓 시민개방, 시민공존화를 위한 ‘인포센터’ 운영, ‘라운드 테이블 1.0’ 운영 또한 긍정적 •기존의 부평구 문화재단의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들이 활동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평구 문화재단은 인천시의 10개 군구 중에 가장 많은 생활문화동아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부평구문화재단은 생활문화센터공간16과 문화사람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을 시민들의 동아리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다만 대표적 문화 공동체인 <풍물축제추진위>나 <동풍물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의 소비격차 등 전반적인 문화격차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견에서도 관광, 상업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여부가 중장기적 영향의 방향과 정도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됨 - 문화다양성 중 서브문화, 독립문화,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가 시민과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양한 이해관계의 등장, 다문화인구의 증가 등으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부평문화도시사업 등 관련 문화다양성의 고려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 서구만 현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인천광역시시는 관련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음.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검토되고 있는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제안들은 창의성을 개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계획 등과 연계할 때 대상지를 통한 창의적 역량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됨 •또한 다양한 부대사업의 연계 및 생태계 조성에 따라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부평문화재단의 <부평 사운드> 바이닐 시리즈 제작, <부평 사운드> 기획공연 시리즈 등 창의적 제고를 위한 사업의 연속성 마련 등이 관련임 	
특성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성사업 이후 관광시설 및 공간 확충시 방문의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전국단위 조사에서도 방문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또한 지역관광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관광객 방문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군산시와 비교할 때 문화유산의 개수 등이 부족할 수 있지만, 미군기지의 반환이라는 특수성, 조병창 등 문화유산의 역사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배후•시정(수도권)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지역관광지로 발전할 여지가 상당함 •또한 현재 검토되고 있는 문화도시, 대중음악과 관련된 시설 등 관광객을 유인할 시설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관광객을 유인할 매개는 충분하지만,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